

## 韓國등 10國이 모조품產地

美, 知的소유권保護 강화조치 강구

美國은 韓國을 포함 10개 신생공업국들을 특허발명품·저작권·상표등의 무단복제 원천지로 규정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대책과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들 모조품의 원천지로 보고있는 국가는 한국·대만·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브라질 및 멕시코 등 10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모조품의 규제를 강화토록 촉구하는 등 급년들어 이들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정부는 韓國이 美國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韓國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반특허관세(GSP) 대상국으로부터 제외시켜 무역보호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中共, 特許신청 接受

첫날 필립스社 60件등 國內外서 4천건

中共이 새로운 특허법을 제정, 실시 첫날인 1일 中共 국내외의 기업들로부터 4천여건의 특허신청이 접수되었다고 中共 정부가 발표.

英字誌 차이나 데일리지는 『知的성과가 자의적으로 착취되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후양 쿤이 특허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외국인회사로서 가장많은 특허를 신청한 기업은 60건이상을 접수시킨 네덜란드의 필립스社였다고 밝혔다.

中共관영 新華社통신도 上海 특허사무국에 日本을 비롯한 美國 濠洲 프랑스의 기업들로부터 機械設備에서 醫藥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分野의 특허신청이 폭주했다고 보도했다.

## 植物의 特許保護 主張

變種으로 保護하는 것은 不可能

美國에서 遺傳工學으로 育種한 植物에 특허를 내달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美國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는 特許微生物과 함께, 特許認可를 전제로 植物의 培養細胞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특허를 내준 예가 없다. ATCC의 植物保管責任者 B. Brandon氏는 「과거의 育種植物은 特許가 아니라 植物品種保護會(PVPA)의 보호를 받아왔는데 이것은 그 계통을 繁殖시키는 권리만을 保護할 뿐, 植物 자체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遺傳工學에 의해서 갖가지 形質을 갖춘 植物의 育種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것들을 變種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特許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優秀食品發明 표창제도」 마련

日本 食品特許센타 食品發明振興 위해

日本의 食品特許센타는 食品관계 발명의 진흥을 위해 「우수식품발명 표창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日本의 日刊工業新聞에 따르면 올해로 맞이하는 工業所有權制度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고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내년 5월에 우수식품發明에 대해 표창을 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日本에서는 食品關係特許出願이 6~7천건에 이르는데 이는 전기, 기계부문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지만 食品이 건강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술개혁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發明品이 出願되도록 발명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